"주민센터도 노랫값 내라" 야박

저작권협회 공문… 자치구 "운영비 확보도 어려운데 너무한다"

협회 "정부와 협의… 애초보다 감액"

"노랫값을 내라고 하면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광주시 동구 한 주민센터 직원은 이달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저작권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노래교실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면서 가뜩이나 회원 모집과 운영비 마련에 애를 먹었던 터라 공연사용료(노랫값)까지 내야한다면 노래교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호남지부 명의로 공연사용료 납부를 안내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15일자로 작성된 공문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올해부터 별도 마련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수강생 수와 음악사용시간에 따라 월 6000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음악관련 프로그램은 노래교실과 댄스교실 등으로 광주시에만 1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받아본 광주시나 자치구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일선 자치구로서는 운영비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박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현장 설문을 통해 '무료 사용 의견'을 냈지만 정부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거나 소액의 회비를 받아 어렵게 운영하는데 공연사용료 때문에 회비를 인상하거나 적은 강사료를 깎는다면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노래교실 등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협회의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센터 노래교실에 다니는 이모(여·67)씨는 "강의료가 저렴해서 오랫동안 이용했다"며 "나 같은 서민은 백화점 문화센터는 못 가는데 앞으로 어딜 가야 하냐"고 푸념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문화창작 장려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호남지부 관계자는 "일부 시민의 편익과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익은 보호돼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주민센터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공공성을 인정, 적정한 납부기준을 제시했고 애초보다 감액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간강사 강의료 삭감 철회하라

전남대 미술학과 시간강사 등이 17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강의료 지급방식 변경으로 강의료를 삭감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독감 주의보' 광주 환자 증가 추세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전국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 초기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85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1월 둘째주(6~12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유행기준 4.0명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인천, 강원, 서울의 인플루엔자 환자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일단 유행하면 기간은 평균 6~8주 지속하며 유행 정점에서는 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의 약 5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는 1월 5일과 3월 30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과 중국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홍보 및 발열감시를 강화하는 등 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흥수 감염병감시과장은 "인플루엔자가 유행 초기단계인 만큼 현재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며, 광주는 지난해에 이어 타지역보다 발생률이 높다"면서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고위험군(노약자, 소아, 임신부 등)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성범죄자 또 '화학적 거세'

광주지법 명령… 서울남부지법 이어 두번째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두 번째로 받아들였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했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한 것은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해 8월 25일, 현재 12살인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된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자발찌범 학교 접근 경찰·학교에 알려 준다

중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전과자가 학교 근처로 접근하면 학교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Safe zone)에서 학생들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성년 성폭력 교원 징계 감경 대상서 제외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훈·포장이나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7년전 털었던 집 다시 털다 덜미

주인이 얼굴 기억 검거

7년 전 금품을 털었던 집을 다시 찾아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7일 주택에 침입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박모(63)씨의 집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쳐 148만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 2명의 계좌에서 108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7년 전 박씨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붙잡혔는데도, 당시 집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박씨의 7년 전 절도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검거된 절도범 얼굴과 은행 CC-TV에 찍힌 용의자 얼굴을 대조해 김씨를 검거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나윤참 〈8735〉 김종두

전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법정 구속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성기 노출한 채 여대생 껴안아

쌍나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귀가하는 여대생의 뒤를 쫓아가 덥썩 껴안은 2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3)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지하철역 인근 거리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로 A(여·21)씨를 따라가 뒤에서 몰래 껴안았다는 것.

○…경찰은 "김씨가 친구들과 소주를 4병 정도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며 지나가는 여대생이 마음에 들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설명.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여행문의 1577-6511
ccm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획득
이달의 우수대리점 롯데마트 월드컵점 (062)523-4300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62) 228-6644
무안출발 북경 1/6 홈쇼핑 특가상품
북경/만리장성+서커스* 4/5일 ●특급 호텔 숙박-샹그릴라 호텔 정통! 399,000원부터 ▶1월 18일~3월 15일 까지
무안출발 상해 초특급 호텔 숙박
상해/귀양/흥의* 5일 ●황과수 폭포 관광/전신 맛사지 추천! 1,269,000원부터 ▶3/2,9,16,23,30~
호남권출발 일본 [훼리+전세기] 상품
큐슈 온천+오사카* 5일 ●훼리 출발/전세기 도착! 초특급 HIT! 899,000원 ▶2월 24일 출발
무안출발 방콕 무안출발 겨울전세기 상품
태국/방콕/파타야* 5일 관광 849,000원부터 골프 899,000원부터 ▶1월 20일 ~ 2월 25일 까지
유럽: 이집트완전일주 10일 1,990,000 / 터키 완전일주 8일/9일 1,390,000 / 1,690,000 / 인도 완전일주 8일 129만원부터
서유럽인기상품: 서유럽 6개국 12일 2,990,000 / 이태리 일주 7일 2,490,000 / 서유럽 4개국 10일 3,890,000 / 동유럽 4개국 7일 1,090,000
동남아: 홍콩 3일 999,000 / 세부 3일 999,000 / 푸켓 5일/6일 899,000 / 캄보디아 앙코르왓 5일 649,000
중국/괌사이판: 대만/화련 4일 489,000 / 곤명 5일/6일 749,000 / 계림 5일/6일 399,000 / 장사/장(원)가계 379,000 / 서안 349,000 / 사이판/괌 PIC 골드 4일/5일 1,099,000 / 괌 온워드 4일/5일 999,000 / 사이판 월드리조트 4/5일 1,149,000
미주/남태평양: 와이키키 비치 메리엇 6일 1,690,000 / 항공권+호텔 1박 5일/6일 899,000 / 미서부 완전일주 109만원부터 / 미동부 캐나다 229만원부터 / 호주 골드코스트 시드니 6일 1,990,000 / 피지 호주 뉴질랜드 10일 2,990,000 / 시애틀/밴쿠버 로키 7일 1,890,000
SIT: 한일 크루즈 3일/4일 599,000 / 싱가폴 쿠알라룸푸르/푸켓 레전드호 크루즈 5일 2,090,000 / MSC 동부 지중해 크루즈 10일 4,090,000 / 스페인 일주 9일 139만원부터 / 홍콩 2박 4일 449,000 / EPL 영국축구 티켓판매/유레일 패스판매
신규대리점 OPEN! 하남점 062) 611-8875
●광주권: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백운점, 구시청점, 양동점, 상무역점, 문화전당점, 서광주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권: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